금주의 법구-〈대길상경〉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하지 말라.
슬기로운 이와 가까이 지내라.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섬겨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9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4월 2일) 2018년 5월 16일 수요일

雨中 더 활짝 핀 10만 연등 물결

2018 연등회 우천 우려 씻어내고 성료

사부대중, 부처 탄생 찬탄
한반도 평화 다함께 기원
독특한 아이디어의 행렬燈
남녀노소 · 외국인 눈길 끌어

문화마당 130개 부스 참여
각종 공연 등 종일 펼쳐져

특별취재팀

불기2562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빗속에서도 전국 밤하늘을 밝게 장엄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비가 내려 원만한 행사가 힘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약해진 빗줄기와 함께 연등불빛이 시민들의 마음을 적셨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와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5월 12~13일 전국 각지에서 2018 연등회를 거행했다. 중앙행사인 서울지역은 12일 오후 5시 30분 동국대 대운동장서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다만 새벽부터 내린 비로 인해 연희단의 율동발표는 취소됐으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10여 분간 자율적인 율동 시간이 주어졌다.

雨中 연등회… 환희심 그대로

법요식은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대표와 해외불교지도자 등의 관불의식으로 시작됐다. 자리에 함께한 사부대중은 우산과 우비를 갖춘 채 비를 맞으면서도 삼귀의 · 반야심경 독송을 하며 지극한 불심을 다졌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인 설정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45년 동안 중생에게 펼쳐 보이신 설법의 요지는 뭇생명들이 그 자체로 아름답고 완전하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무량한 대광명 아래선 못난 것도 없고 못된 것도 없다"면서 "반야의 눈으로 바라보면 누구나 값지고 눈부신 생명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나를 사랑하는 동시에 이웃을 감사히 여기는 자리이타의 마음을 되새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설정 스님은 이어 "네가 아프면 나 역시 아프게 되고, 내가 양보한 자리만큼 보다 많은 중생들이 거기서 쉴 수 있다는 불이(不二) 정신을 깨우치면 참된 자비심이 일어난다"며 "인생은 고해이고 미망의 여정이다. 그러나 지혜가 우리를 강인하게 하고 자비가 우리를 따사롭게 한다. 성실하게 살아야 불자이고, 더불어 살 줄 알아야 불자"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설정 스님은 "내가 지금 이 순간 부처로 살 수 있다면 날마다 부처님오신날이다. 이 환한 봄날에 부처님오신날을 한껏 누리며 기쁘게 정진하자.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밝은 연등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자"고 당부했다.

이어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은 〈붓다차리타〉를 봉독했으며,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부처님의 가피가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원하는 발원문을 낭독했다. 또한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와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이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평화무드가 점차 확산되는 데 맞춰 평화기원 메시지를 발표했다.

정토 장엄한 감동의 연등행렬

이후 흥인지문부터 종로1가까지 이어진 연등행렬은 불자들의 식을 줄 모르는 환희심과 함께 부처님 탄생을 찬탄했다. 이례적인 우중(雨中) 연등회로 인해 예년보다 관람객은 다소 줄었으나 맺힌 빗방울이 행렬등을 더욱 빛나게 했다.

올해 연등행렬은 외국불교의 참여 확대가 두드러졌다. 5등단에 참여한 외국불교계에는 태국불교, 베트남불교(원오도량), 대만 불광산사, 스리랑카 마하보디사, 미얀마, 네팔불교 등 남방권불교의 참여가 대폭 늘었다. 이들은 부처님 형상등을 비롯해 사리탑등, 원형평안등의 장엄등으로 눈길을 끌었으며, 대만 불교의 경우 천진불들과 함께 행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국내등 중에서는 '아이좋아V캠페인'을 최근 선포한 조계사가 유모차 부대와 함께 행렬에 나서 주목받았다. 또한 매년 행렬등 공모전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한마음선원은 해수공용등 · 연꽃수레등의 장엄등과 관하는 부엉이등 · 가난한 여인의 등을 통해 등 제작 실력을 뽐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상징한 수국사의 스노보드등과 총지종의 평화통일한반도등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세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중앙버스차로제 시행으로 올해 새로 설치된 버스정류소는 도로 바깥쪽으로 옮겨져 관람석으로 활용됐다. 특히 정류소 지붕 덕분에 비를 피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애용한 관람석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한편 주최 측은 연등행렬 참여인원을 20만 명으로 추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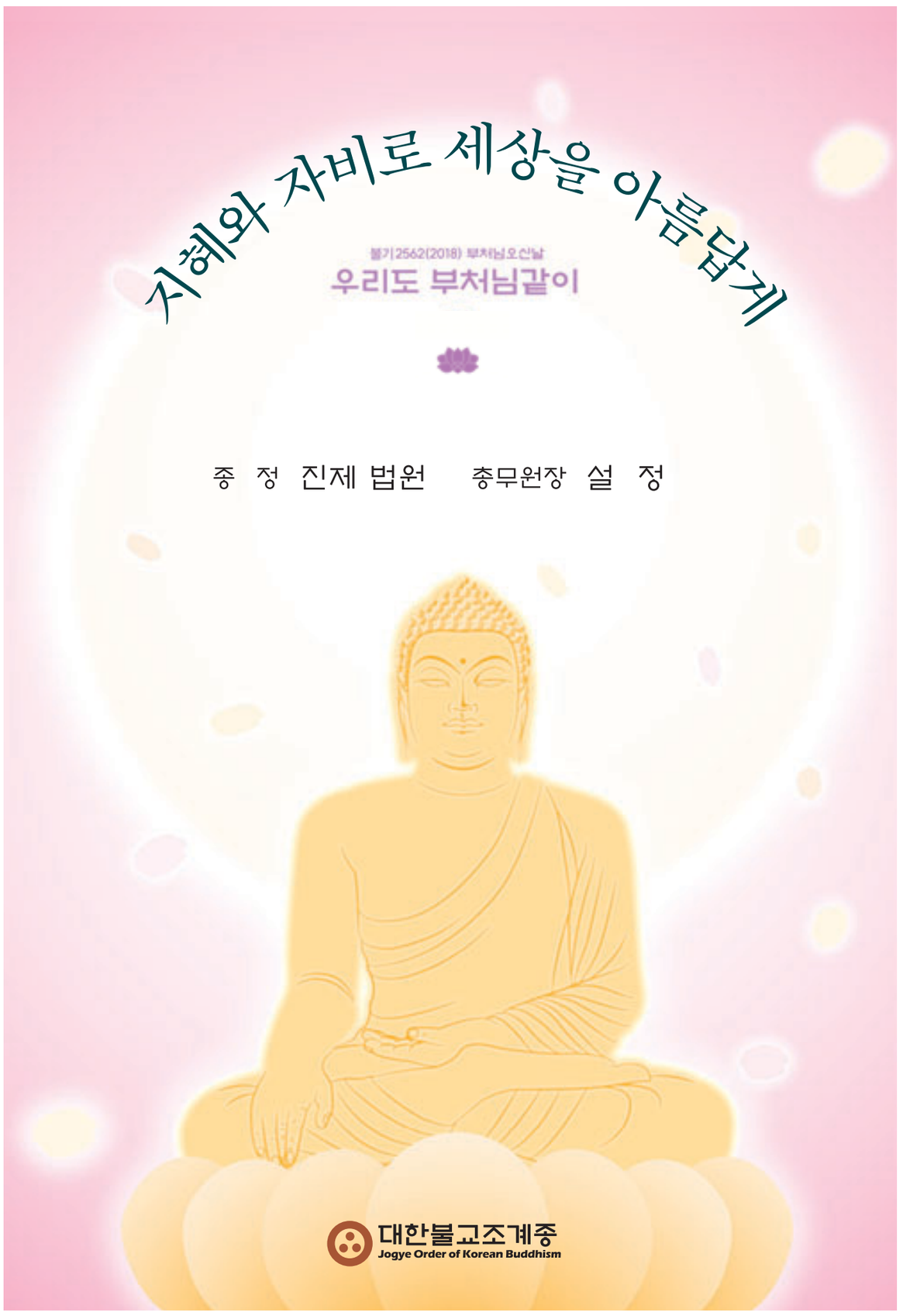
연등회의 열기와 감동은 13일 조계사 앞 전통문화마당으로 이어졌다. 사부대중과 외국인 관광객들은 화창한 날씨에 휴일을 맞아 우정국로를 가득 메웠다.

전통문화마당에는 △먹거리 △청춘 △전통 △국제불교 △나눔 △NGO 등 6개 마당에 130여 개 부스가 들어섰다. 불교문화와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와 명상 체험공간도 마련됐다. 이 중에서도 특히 연등 만들기는 어린 아이들과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다.

국제불교마당에서는 일본, 태국, 스리랑카, 대만, 미얀마, 네팔, 몽골, 베트남, 티베트 등 다양한 국가의 불교가 소개됐다. NGO마당에서는 아름다운동행, 생명나눔실천본부, 승가원, 자비명상 등이 기관홍보와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공평동과 안국동에 설치된 특설무대서는 플래시 몹과 선무도, 북청사자놀이, 승무 등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이후 조계사 앞 공평 사거리에서 연등놀이를 끝으로 연등회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빈녀 난타'의 마음으로 燈 밝히다 부처님께서 오시자 왕과 귀족들은 법회자리를 밝히기 위해 화려하게 잘 타는 기름등불을 켰다. 가난한 난타는 등을 밝히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 작은 등불을 밝혔다. 비바람이 불어도 끝까지 홀로 타오른 등, 바로 '빈자일등(貧者一燈)' 일화다. 5월 12일 서울 종로 일대서 진행된 연등회는 우천 속에 진행됐다. 한해 동안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기 위해 준비한 연희단에게 남은 것은 날씨에 굴하지 않고 환희롭게 이를 장엄하는 것 뿐이었다. 홀로 밝게 탄 빈자일등처럼, 행여 비에 젖을까 정성스럽게 비닐로 감싼 연등은 빗속에서 더욱 밝게 빛났다. 사진=박재완 기자



2018년 봉축특집호
A · B · C섹션 72면 발행

선지식에게 듣는다 A5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명선 스님



도반의 향기 C1~2
영화감독 김행수 · 배우 전무송



봉축법어 · 봉축사 A7~9
봉축화보 A18~19



봉축특집
한반도 평화, 불교에 답있다 A11 · 12 · 13 · 15 · 16
이제 다시 수행이다 B1 · 2 · 3 · 5 · 6 · 7
청춘 불교 B14 · 15 · 17
내 인생의 부처님오신날 C9

다음주 휴간 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